

7세기 전반 미륵사 석등 원형 디지털로 복원하다

이종근 기자 lig@sjbnews.com

국립익산박물관은 19일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 특별전 〈제의 빛, 미륵사 석등을 갖는다〉

전시는 익산 미륵사지 석등 옥개석·화사석·상대석, 부여 가탑리 절터 석등 하대석, 공주 탄전 정치리 절터 석등 하대석 등 35건 38점 및 익산 미륵사지 석등 관련 실감콘텐츠 6종이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 박물관의 미륵사지와 고대 불교사원 조사사업 중 하나인 장건기 미륵사 석등의 디지털 복원 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다.

석등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흔하지만, 흔한 만큼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백제 석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는 것. 석등은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빛'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자, 사찰안의 어떤 조형물보다 우리 민족의 조형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요한 창조물이다. 백제 미륵사에는 이러한 석등이 3개 이상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정확히 고증·복원하고, 더 나아가 사찰에 재현해보려는 시도이다. 더불어 현재 남아 있는 백제 석등을 한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 특별전
백제 석등에서 한국 석등의 기원을 찾다



자리에 모두 모아 백제 석등의 원형에서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탐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미륵사지 동원·중원의 금당지와 탑지 사이에 남아있는 석등의 하대석은, 7세기 전반 장건기 미륵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미륵사지에는 이 하대석 2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된 13점의 석등 부재가 전한다. 이 가운데 같은 모양, 비슷한 크기의 화사석이 3점, 옥개석 3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륵사 3원 가람에 같은 모양, 비슷한 크기의 석등이 3기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우리 박물관은 13점의 석등 부재를 모아 3차원 실측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부재의 원래 모습을 디지털 복원했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경우의 수로 조합해 장건기 미륵사 석등의 옛 모습을 재현했다. 전시실에서는 미륵사지 석등 부재를 3D 스캔하여 제작한 모형을 직접 조립해 보거나, 높이 6.6m 대형 화면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나만의 석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등명(燈明)으로 나타낼 미륵불을 형상화한 미륵사 석등을 연등(燃燈)으로 제작하여 석등에 불



을 밝히는 점등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도 준비했다.

또, 현전하는 백제 석등 3점(익산 미륵사지 석등, 부여 가탑리 석등 하대석, 공주 탄전 정치리 석등 하대석)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백제 사찰 안에 석등이 서 있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부여 외리 출토 산수무늬 벽돌(山水文磚)의 모티프를 활용한 3D 홀로그래픽 글래스 아트도 선보여, 백제 석등의 원형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나라는 달라도 느낌은 하나

크로아티아 모토분국제 사진전



아트앰케르코리아가 14일부터 24일까지 크로아티아 모토분 아트갤러리 펫쿨라(Pet Kula)에서 모토분국제사진전을 갖는다.

이 전시는 'The World Breathes again(세상이 다시 숨쉬다)'를 주제로 9개국 31명의 사진가들이 코로나-19 동안 그들의 삶과 주변을 기록한 작품들로 선보인다.

그리스 Hara Sklika 작가는 코로나로 집콕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당에서 매일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행위적인 사진작업을 펼친다. 마스크와 수영복을 착용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의 모습이 사라진 상황을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관조하고 있다.

이탈리아 Carlo Ferrara 작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극단적인 삶의 변화를 사각의 흑백 프레임 속에 자신의 모습을 미니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 Han Being 작가는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하나였음을 Wear Project퍼포먼스를 통하여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다.

미국 Michelle Kwon 작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플라이드레스 퍼포먼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며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그녀의 공간인 집에 머물면서 플라이드레스 작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박영삼 작가는 서울 도심 속 차량들을 레이어 작업을 통하여 일상의 멈춰짐과 어여짐을 사진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백미숙 작가는 고향인 익산 춘포의 골목길에서 만나는 대문 밖 세워진 빗자루가 보여주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한국인의 정서를 사진 속에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다.

최옥희 작가는 창문에서 바라본 안개 속 세상을 단조로운 구도로 담아내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David Matković 대표는 "이번 모토분국제사진전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전시로 이스트라 반도에서 오래되고 아름다운 모토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감동의 전시가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

아트앰케르코리아 곽풍영 이사장은 "각국의 작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근 기자

정읍 무성서원에서 동서양이 만나다

비올리스트 최은식 음악감독 '비바체 앙상블' 클래식 공연

세계문화유산 정읍 무성서원(원장 이치백)이 지난 16일 저녁 색다른 공연을 가졌다.

무성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단 주관 〈풍류방에서 피어나는 풍류와도〉 공연의 일환으로 비올리스트 최은식 음악 감독(서울대 교수)이 이끄는 〈비바체 앙상블〉의 클래식 공연이 개최됐다.

참여자들은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된 공연이었음에도 지역 주민 및 정읍·전주 등지에서 온 청중들이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느꼈다.

이날 공연은 서원(書院)이라는 지극히 동양적인 공간에서, 서양을 프악인 클래식이 연주되어 만국 공통 언어인 음악을 매개로 '동서양이 만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날 연주된 곡은 모차르트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드보르작 현악 4중주 〈아메리카〉, 엘가 〈사랑의 인사〉와 우리 민요 〈도라지〉 등,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접해 본 귀에 익숙한 음악이었다.

한편 정읍 무성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단은 현재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공연된 〈풍류방에서 피어나는 풍류(風流)와 도(道)〉는 총 4회의 인문학 강연과 2회의 음악 공연이 있다. 이외에 〈무성서원, 예(禮)에서 높다〉, 〈선비정신 학(學)에 기대다〉, 〈최치원, 정국인 선생 발자취를 따라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8년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이 한 편의 시

물의 노래

유인실

묵향을 품은 동천의 동굴인가

은빛 날개를 달고 고삐 풀린 채 내달리는 물의 노래여

붉은 무지개다리 너머 어둡해진 계곡의 푸른 고요 속에서

암반 환히 빛나는 거연정의 밤을 누빈다

붉은 포도주빛 향기는 푸른 소나무 숲속으로 번져가고

희미한 별들의 침묵은 흰 마루 위에서 펼쳐인다

물의 노래는 고통에 출렁이며 말이 없다.

지난여름은 이미 흘렀고 아직 오지 않은 가을을 기다리는

팅 빈 부재

삶은 물의 노래를 닮아간다.

이천 겹의 옷깃은 전설이 되어간다



유인실 시인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시인, 문학평론가. 문학연구자

시집: 『신은 나에게 시간을 주었다』, 『바람은 바람으로 온다』 외

평론집: 『문학과 커먼즈』

저서: 『환상, 실제 그리고 문학』 ·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양 글쓰기』 · 『사람의 시 여행에서 만나다』 · 『한국 현대문학과 탈식민성』 · 『일상의 인문학』 (공저) 외

번역서: 『인지문제론』 (공저)

현) 전북대학교 출강, 월간 『수필과비평』 주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집, 따뜻한 세상

청목미술관, 시 어린이 주거복지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

청목미술관이 19일부터 25일까지 전시실(청목빌딩 1층)에서 2021 전주시 어린이 주거복지 그림 공모전 수상작전을 갖는다.

주거복지 그림 공모전은 지난 8월 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전주시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의 소중함'(부제: 집은 왜 필요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집'(부제: 살기 좋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등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집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 응모하게 하는 어린이 참여 행사로 열렸다.

전시는 '2021 어린이 주거복지 그림 공모전' 결과, 7일 전주시 주거복지 박람회와 연계, 이미 시상된 10점(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2, 장려상 5)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통해 선정된 청목상 10점을 합해 모두 20점이 선보인다.

청목상 수상자는 권나윤(완산초), 김민지(완산초), 윤혜미(완산초), 민선우(신성초), 임채빈(중산초), 정수인(풍남초), 배유란(양현초), 장세나(양현초), 김영민(효문초), 김규나(온빛초) 등 10명이다.

'살기 좋은 집, 따뜻한 세상'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미래에 주역이 될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까지도 인간 삶의 세 가지 기본요소 중의 하나인 '주거(住居)'의 영역에 있어 '집의 소중함'과 '살기 좋은 집'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고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갖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박형식 청목미술관 이사장은 "자신의 생각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는 초등학생 수상자들의 창의적이고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 기량(氣量)을 칭송하며 박수를 보낸다"면서 "소중한 수상작 20점이 시각예술 전문 전시공간에서 제대로 전시되는 기회를 통해 수상 어린이들이 앞으로 더 나은 예술적 역량을 가진 인재로 힘차게 진로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 전주시 어린이 주거복지 그림 공모전'사업과 취지가 널리 홍보되고 '주거복지'에 대해 어린이들이 느끼는 순수하면서도 의미 있는 생각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의도로 재단법인 청목미술관이 후원하여 진행된다. '청목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들은 이번 전시 첫날인 19일 오후 4시에 청목미술관 전시실에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종근 기자

전주향교와 한벽굴서 국제행위예술제 성료

'2021 전주국제행위예술제'가 한국행위미술가협회 발대식과 함께 16일 오후 3시 전주향교와 한벽굴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위예술제는 부산과 서울, 제주에서 행해졌던 세이브 미얀마 예술행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다. 전주 예술행동은 'Peace be with All(모두에게 평화를.)'

이라는 주제로 선보였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아픈 역사의 기억을 간직한 대한민국, 뉴스를 통해 들은 미얀마 소식은 그 시절 한국이 겪었던 비극의 복사본이라 할 만큼 닮아 있었다. 미얀마의 시인 '켓 띵'은 "그들은 우리의 머

리를 쓰지만 혁명은 우리 심장에 살아 있음을 모른다"고 비판했고 그를 간단히 조사하겠다고 군경에 끌려간 후 하루 만에 심장을 포함한 장기의 일부가 제거된 시신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우리의 두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기사들이었다.

이에 전주국제행위예술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예술 행동으로 늘의 미얀마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

억하려하면서 하루빨리 미얀마의 봄을 통해 그들의 자유로운 일상과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행위예술제에 앞서 한국행위미술가협회 발대식이 함께 진행됐다. 1967년 한국 최초 행위예술 실현 이후 소수의 작가들에 의해 한국미술사에 의미있는 족적들을 찍어 왔으나 역할에 비해 시중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위미술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홍재 한국행위미술가협회 회장은 "1988년 한국행위예술협회가 출범하고, 2006년 한국행위예술가협회가 창립됐지만 활동이 미진해 단체는 유명무실해 체된 상태에서 2020년 행위미술가들의 권익신장과 작가로서의 생명력을 발산시키고 한국미술사에 행위미술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2021년 여기 전주에서 발대식을 거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종근 기자

